

검찰, 기소의지 확고... 대선 전이야 후냐 시점 놓고 고민

박근혜,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대부분 부인

우병우·재벌 수사 결과 따라 기소 시점 유동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검찰이 수사의 마지막 고비이자 정점으로 꼽힌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마무리한 뒤 머지않아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1일 오전 9시 30분께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제기된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관계없이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진술 내용과 증거관계, 범리 등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우선 고심하겠지만,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작년 10~11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과 최씨의 사익 추구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기업 경영·인사권 개입,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등 8개의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박 전 대통령을 입건했다.

여기에 12~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서는 삼성 특혜와 관련한 433억원대 뇌물수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부당 퇴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 5개 혐의가 추가됐다. 이러한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재판에 넘기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안중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운선(51) 전 문체부 장관 등 핵심 공범들이 모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기소 시점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5월 9일로 확정된 대선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일정표상 각 정당은 내달 초 후보를 확정하고 14~16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검찰이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 일찌감치 재판에 넘기거나, 아예 대선 이후로 시점을 미루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삼성과 함께 대가성 자금 지원 의혹에 휩싸인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과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수사의 진척 상황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특검 수사 단계에서 기소된 여타 피고인들의 재판 일정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검법상 1심은 기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 2심과 3심은 전심의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하게 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의 공범으로 규정돼 이들의 재판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너무 늦지 않은 ‘적정 시점’에는 기소돼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다. /연합뉴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최순실(왼쪽부터),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경희 전 이대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께 송구”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심경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주혁신도시 기관 지역인재 15% 이상 채용

광주시·기관 인사처장 합의 맞춤형 인재 육성 협력도

한국전력공사 등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15% 이상 채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전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8.8%였으며, 이전공공기관의 평균 채용률은 11.4%였다.

광주시는 21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김종식 경제부시장 주재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확대 간담회’를 열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전력공사 이현빈 인사처장 등 이전공공기관 인사처장 13명과 전남대학교 김인석 취업센터장 등 지역 대학 취업담당부서장 9명 등 26명이 참석했다.

이전공공기관 인사담당 부서장들은 ▲지역인재 채용 15% 이상 확대를 위해 서류전형 등 가산점 확대, 채용비율, 채용목표제 등 확대하고 ▲지역인재들이 쉽게 이전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과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지역대학 취업담당 부서장들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 확대가 필요하고,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이전공공기관의 순회 채용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한 적극 지원, 대학총장 추천제 인력채용을 요청했다.

김종식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전공공기관 인사 부서장과 대학 인사 부서장이 소통하는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나가자”고 말했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김밥·초밥 도시락 점심, 죽으로 저녁 해결

출석부터 심야조사까지

파면된 지 11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정을 비교적 담담했다.

이날 오전 9시 15분 삼성동 자택에서 검정 에쿠스를 타고 출발한 박 전 대통령은 경찰의 교통 통제 속에 9분 뒤인 9시 24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기다리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임원주 사무국장과 총무과 직원에게 잠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현직 때 공식 석상에 나설 때와 다를없는 단정해진 올림머리에 곱게 화장한 모습이 었다. 짙은 남색 코트와 검은색 정장바지를 입고 검은색 구두를 신은 모습이었다.

포토라인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가 ‘검찰 수사가 불공정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

는 6초 남짓한 짧막한 입장만 남기고 발걸음을 옮겼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간부들이 주로 타는 금색 엘리베이터가 아닌 직원과 일반 민원인들이 타는 은색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이 있는 10층으로 올라갔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특별수사본부의 부본부장인 노승권 1차장(검사장급)을 만나 짧은 인사를 나눴다. 이전 대통령들이 면담했던 대검 중수부장(검사장급)과 격을 맞춘 것이다. 고검장급인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과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책임자는 고검장급인 이영렬(연수원 18기) 중앙지검장이다. 이 지검장이 응대할 경우 ‘과한’ 예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검사장급인 노승권(연수원 21기) 1차장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2시간 30분가량의 오전 조사를 마무리하고 미리 준비한 도시락으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실 중앙지검 1001호



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낮 12시 5분께부터 약 1시간 동안 조사실 옆 대기실에서 변호사 및 수행원들과 함께 김밥·샌드위치·초밥이 조금씩 든 도시락을 먹었다. 박 전 대통령은 죽으로 저녁 식사 후 심야까지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하남동 3층 상가건물 대990㎡ 건물 1,890㎡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24억원(보1억6천, 월1,100만 포함)
- 수원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입점)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1861㎡ 매15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 치평동 3층 상가점포 410㎡ 매5억(보5000만, 월220만 포함)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500㎡ 매 13억5천 (보8천/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46㎡ 건397㎡ 매10억5천 (보3천2백/월366만원 포함)
- 신가동 4층 상가주택 상업지역 대265㎡ 건1609㎡ 매10억5천 (보4천 월500만 포함)
- 상기 외 다수 물건 보유, 상담현영

토지

- 화정동 대지 967㎡ 매 35억원
- 산정동 생산농지, 창고용지 3,810㎡ 20억
- 장성군 삼서면 흥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높음, 남향)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억원

상가임대

- 장덕동 4층 빈 상가 830㎡ 4천/월450만(매매가)
- 장덕동 키즈카페(자동차체험형) 300㎡ 5천/월365만
- 수원동 대형 패밀리레스토랑 1200㎡ 3억/월1,500만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치평동 상가 임대

- 상무나이트 옆 스카이라운지
- 10층 795㎡(250평)
- 권리금 없음
- 음식점 / 병원 / PC방 적합
- 보증금 1억 월250만

봉선동 아파트 매매

- 봉선동 포스코 아파트
- 17층 111㎡(33평)
- 교육환경 최상
- 불로초교 바로옆
- 매매 4억 2000만원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 수기동 23-2번지 제일오피스텔
- 19층 95㎡(28평)
- 보증금400만원 / 월47만원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300만원

문의 010-9203-6161